

특허청 **특허청** **특허청**

튼튼한 지식재산 생태계,
기업성장 견인

www.kipo.go.kr

경제혁신

보도자료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문 의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과 장 김용선 서기관 여덕호 주무관 신혜영	042-481-8180 042-481-8496
	2015년 5월 20일(수) 조건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5월 19일(화)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창조·혁신의 축제, ‘발명의 날’ 50주년 기념식 개최

- 엘지전자(주) 안승권 사장 금탑산업훈장 등 총80명 포상 -
- ‘올해의 발명왕’에 포항공과대학교 이종람 교수 선정 -
- 에어비타, 자이글 등 생활 발명 기업인 다수 수상 -

특허청(청장 최동규)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회장 구자열)가 주관하는 제50회 「발명의 날」 기념식이 19일 서울 코엑스 그랜드 볼룸에서 개최되었다.

「발명의 날」은 발명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발명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1957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으며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했다.

※ 1973년부터 1981년까지는 ‘상공의 날’과 통합하여 개최

‘발명 50년, 창조 한국을 열어갑니다’는 주제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하여 발명·특허 유관단체장 등 600여명의 내빈이 참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와 상상력은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경제적 요소”라고 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발명인이라면 누구나 사업화를 통해 창업에 성공하고 글로벌 진출까지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념식에는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한 발명 유공자에 대해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등 총 80점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졌다.

1등급 훈장인 금탑산업훈장은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특허 전략으로 LTE 표준특허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달성한 엘지전자(주) 안승권 사장이 수상했다.

은탑산업훈장은 정보통신 분야 연구원부터 시작하여 광인터넷, 방송통신 융합기술 등에서 고부가가치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과 모범적인 특허경영을 주도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홍남 원장과 창업(’01) 이후 과감한 직무발명 보상과 핵심특허 확보 노력으로 스마트폰 등의 광학 지문입력 중소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시킨 크루셜텍(주) 안건준 대표이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외에 한국과학기술원 이상엽 교수가 홍조근정훈장, (사)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백만기 협회장이 동탑산업훈장, 서울대학교 이종호 교수가 녹조근정훈장, (주)아이앤씨테크놀로지 박창일 대표이사가 철탑산업훈장, 전남대학교 송요순 교수가 옥조근정훈장, (주)정원주철 송권섭 대표이사가 석탑 산업훈장을 수상했다.

또한, 신기술 연구개발 및 창의적 혁신으로 작년 한해 과학기술계에 귀감이 된 발명가에게 주어지는 ‘올해의 발명왕’ 시상도 함께 진행되었다.

「올해의 발명왕」에는 포항공과대학교 이종람 교수가 선정되었다.

이 교수는 플렉서블(flexible) 디스플레이의 핵심기술인 극평탄 금속 기관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차세대 플렉서블 전자기기의 산업화 발판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주부로서 일상생활 속에서 겪은 불편에 착안한 발명을 사업화하여 성공한 여성 발명가 (주)에어비타 이길순 대표이사가 산업포장을, 제이엠그린 이정미 대표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수상자 중 최연소 발명가는 계남중학교 1학년 고재민 학생으로서 ‘위험방지 안전 커터칼’ 등 각종 발명품에 대한 출원과 발명 대회 수상 실적 등을 인정받아 한국발명진흥회장 표창을 수상했다.

그 밖에도 세계 최초로 하부 복사열 반사판을 구비한 전기 그릴을 발명해 주방기구의 경쟁력을 높인 자이글(주) 이진희 대표이사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금오공대 박현규 학생은 발명의 날 5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된 특허 사업화 해커톤 대회(5.8~10) 동상* 과 산업 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동시에 수상하였다.

* 수상 작품: 보행자의 바른 걸음걸이를 위한 높이조절 에어백 깔창

올해 발명의 날 기념식에는 발명유공자에 대한 시상과 함께 「발명 50초 영화제」와 「발명 사진 공모전」의 수상작이 공개되고 「우리나라 시대별 발명품」, 「특허 해커톤 대회 결과물」 전시가 진행되어 ‘발명의 날’ 50주년의 의미를 더했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우리나라가 거둔 기적적인 경제성장의 바탕에는 발명인들의 남다른 노력과 헌신이 있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발명인들이 창조경제와 경제혁신의 주역이 되도록 발명인의 사기 진작과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제50회 「발명의 날」 주요 포상자(국무총리 표창 이상)는 다음과 같다.

- | | |
|--------------|--------------------------|
| ◆금탑산업훈장(1명) | △안승권 엘지전자 (주) 사장 |
| ◆은탑산업훈장(2명) | △김홍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
| | △안건준 크루셜텍 (주) 대표이사 |
| ◆홍조근정훈장(1명) |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
| ◆동탑산업훈장(1명) | △백만기 (사)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협회장 |
| ◆녹조근정훈장(1명) | △이종호 서울대학교 교수 |
| ◆철탑산업훈장(1명) | △박창일 (주)아이앤씨테크놀로지 대표이사 |
| ◆옥조근정훈장(1명) | △송요순 전남대학교 교수 |
| ◆석탑산업훈장(1명) | △송권섭 (주) 정원주철 대표이사 |
| ◆산업포장(5명) | △김동일 삼성테크윈 (주) 연구소장 |
| | △천기화 (주) 한동알앤씨 대표이사 |
| | △이길순 (주) 에어비타 대표이사 |
| | △이문용 (주)성우하이텍 대표이사 |
| | △유태수 한국발명진흥회 부장 |
| ◆올해의 발명왕(1명) | △이종람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대통령 표창) |
| ◆대통령 표창(6명) | △이경록 (주)아미코스메틱 대표이사 |
| | △이진희 자이글(주) 대표이사 |
| | △이정미 제이엠그린 대표 |
| | △최희철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
| | △ 권욱 한국전력공사 부장 |
| |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단체) |
| ◆국무총리 표창(7명) | △양기해 (주) 세기종합환경 대표이사 |
| | △염승진 에스케이하이닉스(주)수석 |
| | △오창진 한국조폐공사 수석선임연구원 |
| | △이용복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
| | △정순용 (주)나다건설 연구소장 |
| | △이상훈 (주)에브리데이해피 대표이사 |
| | △ 한국생산기술연구원(단체) |

[금탑산업훈장] 엘지전자(주) 안승권 사장

특허를 통해 세계 1위 LTE 강국으로 이끈 'IP리더'

엘지전자의 안승권 사장이 제50회 발명의 날에서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안 사장은 30여 년간 전자 및 정보통신분야 연구를 통해 국내외 특허, 상표 등 총 61건을 등록하였으며, LTE 표준특허 분야 특허가치 세계 1위 달성에 기여하였고,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에 5만 2천여 건의 특허를 공개하여 중소기업과 동반 성장 모델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최고기술경영자로 재임('10~)하면서 지속적인 표준특허 확보 전략을 추진해 LTE/LTE-A 표준필수특허 순위에서 2012년 이후 4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는데 기여하였다.

※ 미국 특허분석기관 테크아이피엠(TechIPM)이 미국 특허청(USPTO)에 등록된 단말기 및 기지국 관련 LTE/LTE-A 표준필수특허 대상으로 분석하여 발표

국내 단일 기관으로 최대 규모인 특허 5만 2천여 건을 중소기업에 개방하고, 이 중 5,200여 건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했다. 뿐만 아니라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개방 특허를 DB화하여 중소·벤처기업들이 개방 특허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과의 상생과 창조경제 형성에 기여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지식재산 경영 선두주자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홍남 원장이 제50회 발명의 날에서 '은답산업훈장'을 수상했다.

김 원장은 정보통신 분야 연구원으로서 세계 최고 수준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에 기여하였으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국제표준특허 확보(468건)와 미국 특허 종합 평가에서 3년 연속 세계 1위를 유지하는 등 정부 출연연구기관 최고의 특허경영 체계 구축하는 것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그는 광인터넷과 방송통신 융합기술, LTE-A 등 정보통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83~'08)했다.

또 표준특허를 활용한 로열티 수익 창출 기반을 구축해 국내 정부 출연연구기관(연구소 24개) 중 최고의 성과를 올리는데 기여했다.

뿐만 아니라 핵심 우수 특허 창출을 위한 지식재산 경영 인프라 구축에 힘써 국내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세계 100대 혁신기관에 선정(美 톰슨로이터, '14.11)되는 영예를 안았다.

[은탑산업훈장] 크루셜텍 (주) 안건준 대표이사

지속적인 특허경영과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으로
창업 12년 만에 중견기업으로 도약!

크루셜텍 (주) 안건준 대표이사가 제50회 발명의 날에서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안 대표는 창업(‘01) 이후 지속적인 특허경영 추진과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으로 900여 건의 특허를 출원 및 등록하고 회사를 단기간에 중견기업으로 발전시켰으며 휴대폰 등의 광학, 지문입력 분야 핵심 특허 확보로 전 세계 시장의 95%를 점유하여 국가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독자적 기술개발과 산업재산권의 확보가 중소기업의 생존 경쟁력이라는 인식 아래 매출대비 16% 이상을 연구 개발에 투자(∼’14)했으며 특허관리전담부서를 운영하여 특허분쟁에 신속히 대처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의 특허 교육을 실시해왔다.

크루셜텍은 세계 최초로 휴대용 기기 전용 OTP*(Optical Trackpad)를 개발하고 세계시장점유율 95% 이상 달성하였으며, 지문인식이 가능한 BTP**(Biometric Trackpad) 모듈의 독자 개발 및 상용화하는데 성공했다.

동사는 2009년 OTP로 3천만 불, 2011년 2억 달러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등 국가 무역 수지 개선에 기여했다.

[홍조근정훈장] 한국과학기술원 이상엽 교수

한국과학기술원 이상엽 교수가 제50회 발명의 날에서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이상엽 교수는 바이오 관련 기술의 연구로 총 227건의 특허를 등록하였다. 또 세계 최초로 대장균 등의 물질대사를 활용해 가솔린 등을 생산하는 기술개발, 나일론 등의 산업원료 생산에 사용되는 미생물 균주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으며 특허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하는 등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미생물 대사공학 분야 연구로 세계 최초로 시스템대사공학을 창시하였으며 균주개발과 관련한 원천기술을 다수 개발하여 국내 친환경 바이오기반 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그는 세계 최고 효율의 바이오플라스틱 생산 기술 분야에서 다수의 특허를 등록하였으며, 그 생산 효율이 뛰어나 ‘플라스틱 박테리아’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기도 했다.

이 교수는 그간의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특허기술대상(‘01), 미국화학회 주관 엘머 게이든(Elmer Gaden)상(‘00), 한국공학한림원 젊은 공학인상(‘05), 미국 산업미생물학회 주관 펠로우상(‘10), 포스코 청암재단의 청암과학상(‘11) 등을 수상했으며 대학원생들과의 공동 특허 출원을 통해 특허 경쟁력을 갖춘 후학 양성에 기여했다.

[동답산업훈장] (사)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백만기 협회장

(사)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백만기 협회장이 제50회 발명의 날에서 ‘동답산업훈장’을 수상했다.

백 협회장은 지식재산서비스 산업 발전과 지식재산 관련법제도 제정 및 정책 수립에 기여하였다. 또한 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정보의 보급확산, 서비스 품질 향상, 국제 협력 활성화, 발명 진흥 및 인식제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등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백 협회장은 특허 2011년 제정된 지식재산기본법상에 지식재산 서비스업의 육성 관련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였고 2012년 발명 진흥법 개정에 참여하여 산업재산권 서비스 산업에 대한 정의 및 육성 관련 사항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기여했다.

그는 2010년 지식재산 강국 추진협의회 공동 대표 및 국무총리실 지식재산정책 자문위원, 2011년부터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 위원회 위원 및 동 위원회 지식재산기반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2013년부터 특허청 지식재산정책자문위원 등을 책임감 있게 수행해왔다.

[올해의 발명왕] 포항공과대학교 이종람 교수

차세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분야 세계 시장 선도의 주역!

포항공과대학교 이종람 교수가 제50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올해의 발명왕’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종람 교수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핵심기술인 극평탄 금속 기관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차세대 플렉서블 전자기기의 산업화 발판을 구축하고, 유연한 투명전극 및 전자소자의 핵심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국내외 특허(최근 5년간 국내 61건, 해외10건)를 확보하여 고효율 LED 분야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공을 세웠다.

이 교수는 별도의 평탄화 처리가 필요없는 세계 최고 수준의 초극박 극평탄 금속기관을 롤투롤(Roll-to-Roll) 공정으로 만들 수 있는 원천기술을 개발했다.

그는 플렉서블 전자 소자용 초극박 “극평탄 금속 기관 제조 기술”의 원천 기술에 대해, 국내특허 5건, 해외특허 1건을 등록하고, 국내출원 15건, 해외출원 6건 등 총 27건의 특허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기술 장벽을 구축했다.

이 외에도 나노기술을 접목한 고효율 LED 기술 개발과 핵심 특허 기술의 국내 기업 기술 이전 및 기술 경쟁력 강화에 공헌했다.